



따뜻한 만남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동국대학교 총장 한태식(보광), 1천만 원 쾌척

동국대학교 총장 한태식(보광)은 2016년 새해 첫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1천만 원을 쾌척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병원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은 새해 첫날에 받아 그 의미를 더했으며, 발전기금은 종립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민에게 인정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에 사용될 계획이다.

한태식(보광) 총장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착공에서 준공 그리고 개원까지 병원 건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지난해 9월 열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02 '2016년 새 희망' 병신년 새해 시무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월 4일 5층 대강당에서 태석기 의무부 총장 겸 의료원장, 오민구 일산병원장, 정지천 일산한방병원장, 김재선 일산행정처장 등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병신년(丙申年) 시무식을 진행했다.

태석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신년사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며 교직원들의 건강을 강조했으며, “올해는 목표를 크게 잡고 한걸음 다가가는 한해를 만들겠다.”며 ▲큰 목표설정 ▲미래에 대한 투자 ▲인재 양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시무식이 끝나고 병신년 새해 첫날 덕담을 나누면서 새해 각오를 다졌다.



03 정각사 정목 스님, 승가의료후원금으로 1천 5백만 원 전달

정각사 정목 스님은 12월 둘째 주 일요가족법회에서 진행된 '작은사랑 성금 전달식'을 통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승가의료후원금으로 1천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정목 스님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형편이 어려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스님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스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수행과 포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목 스님은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억 원을 쾌척하는 등 경제적 형편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스님을 위한 후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섯 분의 스님들이 정목 스님 기금으로 건강을 되찾아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정목 스님의 큰 뜻이 널리 퍼져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4 백마부대 위문품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2월 31일 육군 제 9보병 사단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약 1,000인분의 찹쌀떡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본원 개원 이후 육군 제 9보병 사단과 지속해서 이루어져온 민간군 협조체계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틀을 만들고, 올미년 한 해 동안 고생한 장병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다.

한편, 육군 제 9보병 사단(사단장 강천수)은 '백마부대'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부대로서 휴전선 중서부 전선을 맡으며,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다. 특히 영화 '고지전'의 모티프가 된 '백마고지 전투'의 활약상으로 유명하다.



주인공 43호

기획예산팀

김태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번 주 소개할 주인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김태균 선생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피치를 잘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스피치, 즉 말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들어주기를 힘쓰는 삶'이고,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삶은 '들어 달라고 떼쓰는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주는 모습,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김태균 선생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개인과 개인 또는 부서와 부서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 차이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경청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김태균 선생님처럼 고객이나 타부서 직원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은 곧 내외부 모든 고객들에게 만족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무팀 장 대 현